

로버트 바노이(Robert Vannoy), 구약 역사, 강의 3

원시 시대, 족보 및 고고학

의 연대기 영향

지난 수업시간에 로마숫자 I에 대해 하고 싶었던 말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제 나는 그 요점이 성경에 역사적으로 제시된 그림을 입증하는 일반적인 방식으로 많은 것을 밝혀낸 고고학 연구의 결과와 일반적으로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발견의 대부분은 벨하우젠 시대 이후에 나왔습니다. 즉, 1800년대 후반의 고고학은 이제 막 시작되었고, 이루어진 일은 거의 없었다. 그래서 그는 고대 이집트의 문화 등에 대해 알려진 바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고고학 연구의 영향은 확실히 구약성서에 있는 역사적 자료의 타당성에 대한 벨하우젠의 많은 회의론에 반박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도 고고학은 일반적으로 성경 학문의 세계에서 그러한 종류의 부정적인 비판을 완전히 뒤집을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신뢰성을 확실히 지적하는 고고학적 발견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 말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것과 동일한 구체적인 확증을 제공하는 고고학적 발견이 많이 없습니다. 이는 이집트인들이 기원전 2700년에 글을 쓸 줄 알았다고 말하는 것과 같은 좀 더 일반적인 확증인데, 그곳에서는 1800년대에 모세 시대에는 글을 쓸 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고 주장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것은 근거 없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모세 시대에는 사람들이 글을 쓸 줄 알았고, 높은 문화가 있었고 매우 정교했습니다.

고고학 활용 시 주의사항

그래서 나는 고고학이 일반적으로 성경 자료의 역사성을 지지하는 경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에 대해 더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때때로 사람들은 고고학이 너무 많은 일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우리는 성경이 고고학자들에게 넘겨져 그들이 최종 결정을 내리도록 하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을 수 있습니까, 아니면 믿을 수 없습니까? 알아내기 위해 우리가 그들에게 가야만 합니까? 고고학의 논증을 어떻게 사용할지 주의해야 합니다. 너무 많은 일을 할 것으로 예상할 수도 있고, 너무 적은 일을 할 것으로 예상할 수도 있습니다. 균형이 있고, 비판적인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나는 고고학적 논증을 사용하고 싶지만, 만약 우리가 고고학이 성경을 증명한다고 주장한다면, 나중에 비평가들은 고고학이 성경을 반증한다고 말하는 다른 증거를 제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에 대한 몇 가지 예시를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단지 추상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성경을 증명” 하기 위해 고고학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신중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나는 일반적으로 고고학이 성경의 역사를 확증한다고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증거 사례에서는 말할 수 없을 것 같지만 구체적인 확인 사례가 몇 가지 있습니다.

믿음의 기초로서의 성경 메이첸이 말하는 것은 당신이 성경을 통해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그분이 누구인지, 그분이 왜 오셨는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성경을 통해 복음에 대해 아는 모든 것을 배웁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개인의 종교적 경험의 기초가 됩니다. 비록 성경이 경험의 기초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에는 일종의 상호 작용이 작용한다고 생각합니다. 당신의 믿음은 확실히 당신의 경험을 확증해 줍니다. 그것은 성경에 있는 당신의 생각을 확증해 주며 성령께서 역사하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성령님은 성경을 통해 일하시며,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서 역사하셔서 우리의 이해력을 열어 성경의 내용을 받아들이도록 하십니다. 그리하여 일종의 상호 작용이 있게 됩니다. 그러나 나는 믿음의 기초가 성경이고 성령은 성경과 별개로 역사하지 않는다는 메이첸의 말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당신이 성경의 신빙성과

신빙성을 훼손한다면 사람들은 성경을 듣지 않을 것이고 지적인 반대를 갖게 될 것입니다. 성령님은 그것을 극복하실 수 있습니다. 내 생각에 성령은 일반적으로 합리적 사고 고려 의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 역사하기로 선택하신다고 생각합니다 . 이러한 기독교 신앙의 기초는 무엇입니까? 믿을 수 있는 일인지 등등. 성경은 믿음의 기초이다.

성경은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계시의 수단이다. 그것은 그 목적을 위한 수단이며 우리는 확실히 성경이 아닌 그리스도를 예배합니다. 근본주의자는 무오성을 주장하며 종종 성서 우상 숭배라는 비난을 받습니다. 그리고 확실히 당신은 그것을 피하고 싶어합니다. 예수께서는 유대 민족과 그 당시 서기관들에게 “너희가 성경에서 생명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되 내게로 오지 아니하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성경은 그들이 성경을 잘못된 방식으로 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성경에 대해 접근하는 방식 때문에 그들이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데 방해가 되었습니다. 나는 역사가 우리에게 가르쳐 왔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을 훼손하면 사람들에게 믿음이 거의 남지 않을 때까지 외면하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그 과정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주관주의에 빠지기 쉽습니다. 기본적인 것 핵심적인 것을 경험하고 그것이 주관적이 된다면 누구의 경험도 중요할

수 있습니다. 경험의 중요성을 배제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경험에는 역할이 있지만 그 역할이 기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II. 원시 시대 연대기에 관한 일반 설명 로마 숫자 II로

넘어가겠습니다. “원시시대.” 거기에는 두 개의 하위 요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요점에 도달하기 전에 몇 가지 일반적인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구약성서의 역사 기록의 성격에 대해 논의할 때 나는 현대 서구 역사 기록의 모든 표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역사 기록의 성격 중 특정 측면이 있다는 것을 언급했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연대기의 이 영역에 오면 즉시 다음 중 하나를 만나게 됩니다. 현대 서양 역사서술에서 연대기적 관계는 첫 번째 요구 사항 중 하나이며, 역사 쓰기를 원한다면 정확성이 있어야 합니다. 연대순으로 정확해야 합니다. 구약성경을 보면 연대순 관계가 항상 큰 중요성으로 간주되지는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내 말을 오해하지 마세요. 나는 항상 그런 것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 구약성서에는 연대기가 매우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열왕기에는 북방 왕과 남방 왕의 연대기가 매우 주의 깊게 기록되어 있지만, 구약 연대기의 초기 부분으로 돌아가면 명시적으로 다루어지는 부분이 없습니다. 창세기 12장의 아브라함은 고대 역사에서 그의 시간과 장소를 지정하지 않고

등장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어떻게 데이트를 하느냐는 항상 질문이었습니다. 성경 외의 고대 역사에서 그를 어디에 위치시키나요? 이스라엘이 애굽에 있었을 때와는 또 다른, 확실히 알기 어려운 또 다른 질문을 언급했습니다.

아브라함 이전 시대에도 마찬가지로였습니다 . 아브라함 이전에는 실제로 두 가지 주요 기간이 있었습니다. 아담부터 홍수와 노아까지, 그리고 노아부터 아브라함까지가 있습니다. 내 생각에는 그 기간 중 어느 것도 성경에 나와 있는 날짜가 없습니다.

A. 족보 - 창 5장, 11장과 연대기 이제 아담의 계보를 추적하는 창세기 5장에 나오는 족보를 사용하여 창조부터 홍수까지의 기간과 아브라함까지의 홍수까지의 기간을 추정하려는 시도가 자주 이루어졌습니다. 노아와 그 다음 창세기 11장의 두 번째 족보는 노아와 그의 아들들인 셈, 함, 야벳부터 아브라함까지 이어집니다. 창세기 1장부터 12장까지에는 두 개의 족보가 있습니다. 제가 언급한 것처럼 어떤 사람들은 아담, 노아, 아브라함의 연대를 정하기 위해 연대순으로 그 족보를 활용하려고 했습니다. 나는 그것이 유효하지 않다고 생각하며 그렇게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할 수 없다면 그 기간, 그 기간 중 어느 쪽이든 날짜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제 이 문제를 논의할 때 제가 하고 싶은 것은 A입니다. 얼마 전에 이 주제에 대해 쓴 두 기사의 기본 제안을 요약해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는 William Henry Green의 작품이고 다른 하나는 BB Warfield의 작품입니다. 참고문헌 시트를 로마 숫자 II 아래에 보면 William Henry Green, “Primeval Chronology” in *Bibliotheca Sacra* 1890과 Dr. Robert Newman의 책 에 재인쇄된 두 기사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부록으로 창세기 1 권과 “인류의 고대와 통일”에 관한 BB Warfield의 기사. 원래 1911년 *Princeton Theological Review* 에 출판되었으며 그의 에세이 모음집에도 재인쇄되었습니다. 이제 William Henry Green과 BB Warfield는 모두 1800년대 후반 1900년대 초반에 프린스턴 신학교의 교수였습니다. 그들은 이 문제를 다루었고 나는 이 두 기사가 창세기 5장과 창세기 11장의 족보라는 주제에 대해 지금까지 쓰여진 어떤 기사보다도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가끔 찾아보고 읽어보고 싶을 수도 있지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다음과 같습니다. 해야 할 일은 그들이 당신을 위해 그 기사에서 개발한 논제를 요약하는 것입니다.

B. 그린과 워필드의 5가지 명제 1. 인간이 최근에 기원했다는
생각은 성경에 근거가 없다

나는 다섯 가지 논제나 제안을 제시하고 워필드나 그린의 진술로

이를 뒷받침할 것입니다. 1. “사람이 최근에 기원했다는 생각은 성경에 근거가 없다.” 워필드는 자신의 기사 238페이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의 고대에 대한 문제는 그 자체로는 신학적인 의미가 없습니다. 인간이 지구상에 얼마나 오래 존재했는지는 신학과 전혀 무관심한 문제입니다. 그것은 단지 성경 이야기에서 인류 역사에 할당된 것처럼 보이는 짧은 기간과 일부 과학적 추측 학파가 지구상의 인간 삶의 기간에 할당한 엄청나게 긴 기간 사이에 그려진 대조 때문입니다. 그 신학은 그 주제에 전혀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성경의 진술과 과학 연구자들의 발견 사이에 갈등이 생겼고, 그 문제를 조사하는 것이 신학자들의 의무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주장된 갈등은 완전히 허위임이 입증되었습니다. 성서는 인류 역사에 짧은 기간을 지정하지 않습니다. 이는 확고한 근거가 없는 시험을 통해 발견된 성경 자료를 해석하는 특정 방식에 의해서만 수행됩니다.”

따라서 이제 첫 번째 명제는 “사람이 최근에 기원했다는 생각은 성경에 근거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종류의 질문은 성경이 이에 대해 언급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신학적으로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2. 창세기 5장과 11장의 족보에 나오는 성경적 자료로부터 인간 창조 날짜를 정하려는 시도는 잘못된 절차이다. 2. “창세기 5장의 족보에

나오는 성경적 자료로부터 인간 창조 날짜를 정하려는 시도는 유효하지 않다 11은 유효하지 않은 절차입니다.” 워필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류 역사의 과정에 대한 성경 기록의 잘못된 견해에서 비롯된 인상, 곧 인류가 비교적 최근에 기원했다는 인상을 쉽게 고백해야 합니다. 성경의 자료에 따르면 지구상의 인류의 수명은 약 6,000년 정도에 불과하다는 것이 단순한 성경 독자들의 일반적인 가정이었습니다. 이 가정은 형식적인 연대기 체계에 고정되었으며, 이는 전통이 되었고 심지어 성경 이야기의 연대기적 틀을 제공하기 위해 성경의 여백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러한 계획 중 가장 영향력 있는 것은 1650년 어셔(Usher) 대주교가 고안한 것입니다. 1701년 이래 공인된 영어 성경의 여백에 자리잡은 것이 바로 이 계획입니다. 세계는 4004년에 할당되었습니다.” 나는 여러분 모두가 그것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계산의 기초가 되는 데이터를 보다 주의 깊게 조사한 결과, 그것들은 명확한 연대순 체계에 대한 헌법에 대한 만족스러운 기초를 제공하지 못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자료는 대부분 중요한 부분이 족보에만 기록되어 있으며, 족보에서 연대순 추론을 이끌어내는 것이 극도로 불안정하다는 점보다 더 분명한 것은 없습니다.” 이제 나는 그가 창조의 날짜와 홍수의 날짜를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창세기 5장과 11장의 족보에 의해서라고 내가 언급한

것처럼 그가 옳다고 생각합니다. 더 나아가 그의 기사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 이전의 전체 시간에 대해 전적으로 족보에서도 출된 사례에 의존하고 성경의 족보가 연대순 추론을 위한 확실한 근거를 제공하지 않는다면, 성경 데이터 없이는 어떤 기간의 추정도 수행할 수 없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3. 창 5장과 11장의 족보는 연대기와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 요점: “창세기 5장과 11장의 족보는 연대기와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의 목적은 하강의 선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Warfield는 이렇게 말합니다. “일반적인 사실은 성경 전반에 걸쳐 족보가 연대순 목적으로 수행되지 않았으며 연대순 계산의 기초에 적합하지 않다는 것이 매우 충분히 반복적으로 보여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마도 윌리엄 헨리 그린 박사보다 더 철저한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라고 제가 이전에 언급한 기사에서 말했습니다. “이 족보는 기록된 목적에 비추어 신뢰할 만한 것으로 여겨야 합니다. 그러나 의도하지 않았거나 적합하지 않은 다른 목적으로 안전하게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 특히 족보가 주어진 경우 족보의 목적은 자신에게 할당된 사람들의 가계를 거쳐가는 모든 세대에 대한 완전한 기록을 요구하지

않았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문제의 자손이 속한 특정 계통에 대한 표시는 부적절할 뿐입니다. 따라서 성경의 족보는 모든 종류의 목적을 위해 자유롭게 압축되었으며, 그것이 일련의 전 세대에 대한 완전한 기록을 담을 수 있다는 것을 자신있게 단언할 수는 거의 없다는 것이 시험에 의해 발견됩니다. 매우 많은 숫자가 생략되는 것이 종종 명백합니다. 성경적 족보의 성격에는 고유한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그의 기사의 핵심 진술이 있습니다. “성경적 족보의 고유한 성격에 대한 이유가 없습니다. 기록된 10개의 링크로 구성된 족보는 실제로 실제 족보를 나타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백, 천, 만 개의 링크의 후손. 표에 의해 확립된 요점은 이것이 모두 시작 이름과 끝 이름 사이에 개입하는 링크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은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통해 뒤로 또는 아래로 추적하는 하강 라인입니다.” 이제 이것이 그의 논문의 핵심입니다. 열 개의 연결을 얻으면 기록된 족보에 있는 노아에 추가하십시오. 그렇다고 해서 아담부터 노아까지 10대만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당신이 가진 것은 이것이 아담에서 노아까지의 계보라는 것뿐입니다. 당신은 얼마나 많은 링크가 있는지 , 얼마나 많은 링크를 건너뛰었는지 모릅니다.

1. Beget의 의미 이제 좀 더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것

같이서 잠시 멈추고 논의해 보겠습니다. 첫째, 우리는 성경의 족보에 사용된 “곰” 과 “ 낳다” 라는 용어의 의미를 이해해야 합니다.

여성에 대해 사용되는 “소품” 또는 남성에 대해 사용되는 “소품”이라고 말할 때 남성 또는 여성에 사용되는 두 용어 모두 조상이 된 사람을 나타내는 데 자주 사용됩니다. 이름이 붙은 개인의. 종종 이 두 용어는 모두 “~의 조상이 되다” 라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영어로 “누구나 그렇게 낳았다” 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일반적으로 직계 아들의 직계 혈통을 생각할 것입니다. 그것이 반드시 성경과 구약성경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의미는 아닙니다. 즉각적인 하강을 의미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비. “아들” 의 의미 다른 용어는 “아들” 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는 직계혈통을 생각할 때 “아들” 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내가 내 아들에 대해 말할 때 나는 내 세 아들 중 한 명에 대해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반드시 직계 자손이 아니라 단지 자손으로만 사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마도 이 용어의 의미를 가장 쉽고 명확하게 보여주는 예는 마태복음 1장 1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 아브라함의 자손이시요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거기에는 족보가 있습니다. 연결 고리는 세 개뿐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관련된 족보가 세 개뿐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것은 압축되어 있고 당신이 얻는 것은 하강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아브라함으로부터 다윗을 거쳐 자신에게로 오시는데, 세 가지 연결 고리가 주어져서 중요한 것은 그가 아브라함의 아들이시며 후손이라는 의미에서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 족보의 특징이다.

창세기 46:16-18의 예

창세기 46:16-18을 보면서 이를 더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창세기 46:16-18, 킹제임스성경은 문자 그대로 히브리어 본문을 따르기 때문에 여기서는 킹제임스성경을 사용하겠습니다. NIV를 보면 비슷하기는 하지만 사용하는 용어 때문에 내가 말하고자 하는 요점이 모호해집니다. 창 46:16-18 16절에 보면, 갓의 아들들은 시비온과 학기와 수니와 에스본과 에리와 아로디와 아렐리이다. 아셀의 아들들은 임나와 이수아와 이스위와 브리아와 그들의 누이 세라요 브리아의 아들들은 이러하니 히벨과 말기엘입니다.” 그러나 18절이 핵심 구절이다. “ 이들은 라반이 그 딸 레아에게 준 실바가 야곱 *에게* 낳은 자손들이니 *모두* 십육 명이라.” 18절이 무엇을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 이전에 있었던 모든 일을 요약하고 있으며 그 16명의 이름이 실제로는 갓과 아셀 아들을 포함하여 실바의 아들이었다고 말합니다.

그에게는 실제로 갓과 아셀이라는 두 사람이 있었는데, 나머지 이들은 거기에 언급된 손자와 증손자들입니다. 그러나 16명을 다 합치면 ' 이들은 실바의 자손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분명히 "아들"은 직계 아들, 손자, 증손자를 의미합니다. 모두가 "아들" 이라는 용어에 포함됩니다. 그 외에는 "그리고 그녀가 이것을 야곱에게 낳았다" 고 되어 있습니다. 그녀는 야곱에게 이 16명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비록 아들, 손자, 증손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기서 "to bare"는 그녀가 조상임을 의미하는 것이지 직접 낳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녀는 16명의 조상이 되었는데, "그 아들" 이 반드시 모든 사람이 직계 아들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용어에 관한 한, "누구는 누구를 낳았다" 라는 진술을 읽을 때 주의해야 합니다. 여기서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결론은 그것이 하강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론 그것은 창세기 5장과 11장의 족보에서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 아무개는 누구를 낳았다." 그것이 의미하는 것은 특정 시점에 그래서 다음 라인의 조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직계 아들일 수도 있지만 10세대가 지나갔을 수도 있고, 워필드가 말한 대로 100세대일 수도 있고, 지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알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 "아브라함의 자손이시며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링크가 몇 개 있나요? 채워야 할 다른 데이터가 없다면 당신은

모릅니다. 그것이 첫 번째 용어입니다. 이 세 가지 용어는 “bare” , “beget” , “son” 입니다. 그들은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방식에 익숙한 용어와는 전혀 다른 의미로 사용됩니다.

씨. 요약은 성경적 계보의 일반 규칙이다

이를 더 자세히 설명하기 위해 다음 요점으로 넘어가겠습니다 .
두 번째 하위 요점은 “요약은 성경적 족보의 일반 규칙이다”입니다.
이는 용어에 따라 두 가지 설명을 제시하는 세 번째 명제이고, 두 번째는 “요약은 원칙이다” 이다. 요약은 족보와 호환됩니다. 성경적 족보의 목적은 혈통을 보여 주는 수단이다. 하강 라인은 중요하며 요약은 이를 위반하지 않습니다. 요약은 하강선 표시와 호환됩니다. 누구의 후손인지 보여주기 위해 모든 링크를 추적할 필요는 없습니다. 내려가는 선이 중요합니다. 이제 “축약이 일반 규칙”임을 뒷받침하는 몇 가지 예를 보여 드리겠습니다. 역대상 26장 24절에는 다윗이 임명한 직책의 목록이 있습니다. 역대상 26장 24절에는 “ 모세의 손자 게르숨의 아들 스브엘은 국고를 관리하는 자라 ” 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 이제 그 “아들” 을 직계 혈통으로 여긴다면 다윗 시대에 모세의 손자가 있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게르숨은 모세의 1세대 아들입니다. 이제 우리는 출애굽기 2장 22절에서

게르숨이 그의 아내 십보라에게서 모세에게서 태어났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서술적 맥락이 있어서 아들이 직계 자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역대상 26장 24절에 언급된 다음 사람은 스브엘이고 게르숨과 스브엘 사이에는 약 400년이 있으므로 여기서 요점은 가계라는 것이 매우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스브엘은 그의 조상을 게르숨과 모세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 족보에는 중간에 연결되는 고리가 없습니다.

역대상 6장 1-3절에는 레위부터 모세까지의 족보가 있습니다. “ 레위의 아들들은 게르숨과 고탕과 므라리요. 고탕의 아들은 아므람과 이스할 과 헤브론과 웃시엘이요 아므람의 자손은 아론과 모세와 미리암이요 아론의 아들들은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니라 ” 우리의 단계는 레위에서 모세까지 네 단계입니다 . 이제 레위와 모세 사이에 4대가 있었다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세대 간 간격이 너무 길다면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는 완전히 다른 문제를 야기합니다. 민수기 3장 39절을 보면 모세 시대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의 인구 조사 수치가 나와 있습니다. “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을 좇아 레위인을 그 가족대로 계수하니 일 개월 이상 남자의 총계는 이만 이천 명 이었더라 . ” 좋습니다. 레위부터 모세까지 4대가 있다면 모세

시대에 22,000명의 레위인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것은 꽤 곱셈의 과정입니다. 이제 저는 현의 양쪽 끝을 연주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주의 사항을 추가하겠습니다. 우리는 민수기에 관한 인구 조사 수치에 대해 논의할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민수기의 시작 부분에는 인구 조사 수치 중 일부를 이해하는 방법에 대한 자체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주어진 총계를 민수기 1장 46절에서 찾을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 계수된 자의 총계는 603,550명이었더라.” 20세 이상의 남성이 60만 명 정도입니다. 여성과 어린이는 제외됩니다. 그 60만 명에 3~4를 곱하면 최대 200만 명이 될 것입니다. 그 전체 문제는 나중에 논의하겠습니다. 나는 여기에 몇 분 안에 논의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단지 네 족보에 대해서만 레위인의 수가 상당했던 것 같습니다. 족보의 네 고리가 압축되어 있고 거기에 자손이라는 뜻으로 “의 아들” 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역대상 6장 3~14절과 병행되는 족보인 에스라 7장 1~5절을 비교해 보면, 에스라서의 족보에는 6명의 이름이 빠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연결을 포함하지 않고도 혈통을 추적할 수 있습니다. 이는 모순이 아니며, 항상 모든 연결을 포함하지 않는 것은 성경적 족보 의 특성 중 일부일 뿐입니다. 목적은 완전한 기록이 아닌 혈통의 계보입니다.

그런 다음 마태복음 1장 1절에 이미 언급된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추가 설명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후반부에는 42개의 연결고리를 제공하는 더 크고 더 자세한 족보가 나오지만 거기에도 완전한 족보가 없습니다. 그래서 족보를 비교해 보면 거기에도 공백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요점은 “요약은 성경적 족보의 일반적인 규칙”이라는 것입니다. 족보의 목적은 혈통이며, 혈통을 추적하기 위해 모든 링크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4. 이 족보에 소개된 숫자는 연대적 중요성을 갖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이것과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Warfield와 Green의 기사, 명제 3으로 돌아갑니다. “창세기 5장과 11장의 족보는 서로 다릅니다. 연대순이 아닌, 그들의 목적은 혈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4번. “이 족보에 소개된 숫자는 연대순으로 중요한 인상을 줄 수 있지만 실제로는 이 족보와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이는 단지 수명과 출산이 시작된 나이를 나타내는 역할을 할 뿐입니다. 워필드는 어떤 남자가 130세에 상속자를 낳았고 그 후 800년을 살면서 아들과 딸을 낳고 930세에 죽는다는 말을 들었을 때 이 모든 것들이 협력하여 생생한 인상을 준다고 말합니다. 그 시대에 더 크고 더 위대한 인류가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그린은 이렇게 말합니다.

“각 족장이 아들을 낳은 후 얼마나 오래 살았으며 그의 전체 생애 기간은 얼마나 되었는지 알려 주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숫자는 아들이 태어난 나이와 동일한 규칙으로 제공됩니다. 그것들은 한 시대의 연대기를 구성하는 데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그것들은 단지 우리에게 개인의 삶에 대한 개요를 제공할 뿐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인간 생명의 원래 기간에 대해 선택된 예에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들은 홍수 이전 시대에 그것이 어땠는지 보여주고, 그 이후에 그것이 어떻게 점차 좁아졌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러나 이것을 하기 위해 모든 개인이 아담에서 노아까지, 노아에서 아브라함까지, 또는 노아에서 아브라함까지의 계보로 명명될 필요는 없었습니다. 그것에 접근하는 모든 것. 적절한 숫자가 붙은 일련의 특별한 삶이 필요한 전부였습니다. 지금까지는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전부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족보를 바탕으로 연대순 계산을 한다는 개념은 근본적인 실수입니다. 목적에 따라, 그들은 적합하지 않은 건축 방법을 보조하도록 설계되지 않았습니다.”

예 - 창 11:10 이제 예를 들어, Green이 임의로 선택한 창세기 11:10을 보면 수명과 출산 연령에 대한 개요, 아이디어를 제공하려는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 그는 그것이 정확하다고 확신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단지 개인의 삶에 대해 말해 줄 뿐 그 시대의 연대기에 대해 말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링크가 포함되어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 나이는 점차 좁아져 아브라함 175세입니다. 창세기 11장 10절을 보면 이것이 셈의 족보입니다. 셈은 늙어 홍수 후 이년에 아르박삿을 낳았고 셈은 아르박삿을 낳은 후 오백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아르박삿은 삼십오 세에 셀라를 낳았고 아르박삿은 살라를 낳은 후 사백삼 년을 살면서 아들딸을 낳았습니다. 셀라는 삼십 세에 에벨을 낳았더라.” 그는 계속해서 500년을 살면서 아들딸 넷을 낳았는데, 백세에 조상이 됩니다. 이제 요점은 그가 셈보다 5대 후손인지, 10대인지, 100대인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그것을 모릅니다. 용어로는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그가 우리가 모르는 사람을 낳았을 수도 있고, 그 결과 다른 사람을 낳은 것보다 백 년을 살았을 수도 있다는 것뿐입니다. 우리는 아르박삿을 낳은 사람이 누구인지 확실히 모릅니다. 보시면 공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비록 직접적으로 그렇다 하더라도 당신은 여전히 셈에게 그가 백 살이 되었고 아르박삿을 낳았다고 말할 것입니다. 창세기 11장의 예를 보십시오. 당신은 그것이 구성된 방식을 따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분명히 밝히고자 하는 것은 셈이 홍수 2년 전에 아르박삿의 조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직계

조상인지, 아니면 그 사이에 수많은 연결 고리가 있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는 썸의 후손에게서 태어났을 수도 있고 그의 혈통을 썸이 100세였던 이 시점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도 있지만, 여러분은 알 수 없습니다. 그 사이에 연결이 없다면 썸이 몇 살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는 아르박삿이 태어날 무렵에 죽어 없어졌을 수도 있습니다.

Ashleigh Long이 각본을 맡았습니다.

거친 편집: Ted Hildebrandt

Rachel Ashley의 최종 편집

테드 힐데브란트(Ted Hildebrandt) 가 다시 해설함